

피아졸라의 삶과 음악

홍승찬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유럽과 미국을 거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매력적인 춤입니다. 볼룸댄스를 배우게 되면 왈츠로 시작해서 탱고로 끝나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탱고하면 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날 탱고 음악은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고가 이처럼 클래식 음악의 영역으로까지 뻗어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누에보 탱고’(nuevo tango), 즉 ‘새로운 탱고’야말로 거듭되는 고난과 거센 역경에도 절대로 굽히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싸워서 이긴 위대한 투쟁의 결실입니다.

2012년은 ‘탱고의 황제’라 일컫는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스무 해가 흐르는 동안 피아졸라의 탱고는 클래식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레퍼토리가 되었고, 지금은 피아졸라가 생전에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반주음악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귀로 들으며 그 전율을 온 몸과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으로 널리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새삼 놀라운 것은 이토록 엄청난 변화가 오로지 한 사람의 의지와 재능, 그리고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일이 20년이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에 기적과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1921년 3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르 텔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1992)

플라타에서 이발사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살 때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살았고, 열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다 준 반도네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도네온은 아코디언을 닮은 악기로 탱고 연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1846년 독일인 H. 반도가 처음 만들었고, 네모난 모양의 긴 주름상자의 양끝에 단추식의 건반을 갖추고 손목을 통해 악기를 떠받치는 가죽 밴드가 달려 있습니다. 고음역의 오른손 건반 38개와 저음역의 왼손 건반 33개로 142개의 음을 내고, 레가토 주법과 함께 아코디언으로는 낼 수 없는 날카로운 스타카토 연주도 가능합니다. 1880년경 탱고 밴드에 도입되어 탱고 연주에 변화를 주었고, 1910년경에는 피아노, 바이올린과 함께 탱고의 주요 악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아졸라는 반도네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기는 독일에서 교회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발명하였습니다. 오르간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악기를 발명한 거지요. 그리고는 반도니움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원들이 항해할 때 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오게 된 거지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재빨리 이 악기를 탱고 연주에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매우 슬프기 때문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아코디언은 행복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반도네온에는 행복한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주법의 범망을 피해 갱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터를 잡은 미국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피아줄라는 마피아 갱단의 톨마니 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날렵한 싸움꾼에다 특히 왼손 주먹이 강해서 ‘왼손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권투선수로 성공하고자 열심히 훈련을 하던 어느 날 체육관에서 같은 또래의 제이크 라모타와 권투 시합을 벌여 한 방에 KO된 뒤로 권투선수의 꿈을 접게 되지요. 피아줄라를 상대했던 제이크 라모타는 훗날 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인물로, ‘성난 황소’라는 그의 별명을 딴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가 아들의 관심을 음악으로 돌려놓으려 했던 것이지요.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통했는지 악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빼어난 솜씨를 터득한 그는 라디오 연주회에도 출연할 만큼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곧바로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 벨라 윌다에게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탱고 가수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의 눈에 띄는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탱고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퇴역장교로 나오는 알 파치노가 낯모르는 젊은 여인과 탱고를 추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요 이 때 흐르는 음악 「포르 우나 카베사」가 바로 가르델의 대표곡입니다. 피아줄라로 말미암아 탱고가 클래식 음악이 되었다면

가르텔은 그에 앞서 탱고의 가능성을 춤에서 노래로, 또 영화의 영역으로 까지 넓힘으로써 아르헨티나는 물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음악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린 피아졸라는 미국으로 진출한 가르텔의 노래 반주는 물론 통역까지 맡아 함께 다녔고, 가르텔이 만든 영화에서 신문 팔이 소년으로 출연하여 반도네온을 연주할 정도로 가르텔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자칫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가르텔은 카리브해로 향하는 자신의 연주여행에 피아졸라를 데려가려 했



카를로스 가르델(1890~1935)

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비행기가 콜롬비아에서 추락하면서 가르텔은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에 피아줄라가 함께 탔더라면 우리는 지금 피아줄라는 물론 그의 주옥같은 명곡도 전혀 모를 것이고 탱고의 역사와 위상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열여섯 살이 되던 193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 피아졸라는 반도네온 연주자로 크게 주목을 받지만 그의 타고난 재능과 열정은 현실에 안주하도록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춤이나 노래를 반주하는 음악에서 탈피하여 악기의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새롭게 시도하는 탱고 음악은 번번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한 번은 축구팀 보카 주니어스의 팬클럽을 위한 카니발에 자신이 편곡한 탱고 음악을 선보였지

만 사람들은 “여기가 콜론 극장이냐”고 따지면서 그를 무대에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콜론 극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크고 화려한 공연장으로 주로 유럽에서 초청한 클래식 음악가들이 서는 곳이니 말하자면 서민의 취향이나 아르헨티나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콜론 극장에서 당대의 클래식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고 마음이 끌렸던 피아졸라는 거장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루빈스타인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알베르토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포니아타」라는 작품으로 아르헨티나의 작곡 콩쿠르에 응모하여 파비엔세비츠키 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 특전으로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되지요. 이래저래 마음이 상한 피아졸라는 본격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파리로 떠나 현대음악의 대모와도 같은 나디아 블랑제(Nadia Boulanger)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피아졸라가 평생을 이룩한 음악적 성취와 업적에 있어 반도네온과의 인연을 맺어준 아버지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면 나디아 블랑제는 두 번째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디아는 요절한 여동생 릴리와 더불어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류 작곡가였습니다. 릴리가 일찍 작곡가로서 재능을 발휘했던 것과는 달리 나디아는 작곡가보다는 음악교육자로 더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피아졸라는 물론 레너드 번스타인, 조지 거쉬윈 등 당대의 거장들이 모두 나디아 블랑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피아졸라는 그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수십곡의 악보를 블랑제에게 보였지만 스승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시큰둥했습니다. “잘 썼어. 그런데 여기는 스트라빈스키, 여기는 바르토크, 여기는 라벨이군. 그런데 피아졸라는 어디 있지?” 이어서 블랑제는 피아졸라에게 이것저것을 캐묻기 시작했고, 끝내 피아졸라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반도네온을 연주했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반도네온 연주를 들은 블랑제는 ‘이게 바로 피아졸라’라면서 그

걸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의 여러 가치를 접목시키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니라 파리에서 탱고를 깨달은 피아졸라는 「쇼 파리」, 「브라운과 블루」같은 초기의 걸작을 탄생시켰고, 당시 파리 교외에 들어가던 일방통행로에 착안해 “일방통행”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유학을 끝내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간 피아졸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8중주단(Octeto Buenos Aires)을 만들어 정통 탱고와 고독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말은 물론 주먹질까지 오고 가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통해 의지는 더욱 불타올라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때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우울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끝으로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즈에 폭 빠져들어 탱고에 재즈를 더하는 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람들은 ‘재즈 마이너스 탱고’라는 혹평을 퍼부으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난보다는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피아졸라는 탱고 댄스단의 카리브 해 투어에 합류하였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잠근 그는 반도네온으로 「아디오스 노니노」(Adiós Nonino)를 연주하였습니다. 그의 부인 데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한숨 소리마저 끔찍했다. 그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 사실 우는 모습 자체를 처음 보았다.” 그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고 음악으로 거듭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아버지였기에 충격과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이겨낸 다음 피아졸라의 의지는 더욱 결연해졌고,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돌아간 그는 새로운 탱고 오중주단(Quinteto Nuevo Tango)을 결성하였고, 이때부터 자신의 탱고를 ‘누에보 탱고’, 즉 ‘새로운 탱고’라 부르며 기존의 탱고와 확실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비난은 계속되었지만 피아졸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음악을 탱고가 아니라고 말해도 좋지만



크로노스 4중주단, 『다섯 개의 탱고 센세이션』(1992)

아르헨티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침내 브라질의 리우에서 먼저 인정받더니, 그 열기가 라플라타 강 건너편 몬테비데오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입은 피아졸라는 오페레타까지 경계를 넓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를 작곡했고, 새로운 탱고의 시대를 선언하는 「광인을 위한 발라드」를 내놓았습니다.

1974년 유럽으로 건너간 그는 이후 10년간 파리와 암스테르담, 비인은 물론 뉴욕과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자신의 음악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탱고의 열풍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도 점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음악계의 정상에 우뚝 서는가 했지만 1990년 파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전세기를 보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귀향하는 호사도 잠시 1992년 7월 5일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크로노스 4중주단이 연주하여 발표한 피아졸라의 작품집 『다섯 개의 탱고 센세이션』은 세계 음악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마침내 피아졸라는 탱고의 황제로,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신으로 추앙받는, 소설가 보르헤스는 말하기를 “탱고는 라플라타 강에 속해 있다. 아버지는 우루과이의 밀롱가, 할아버지는 쿠바의 아바네라(habanera)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루과이 사람들은 탱고의 종주국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우루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탱고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녹아 있고, 그것이야말로 탱고의 생명력입니다. 피아졸라 스스로도 탱고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탱고는 순전히 지중해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제노바, 그리고 스페인의 플라멩코, 또 어느 정도는 쿠바에서 왔죠. 그러나 결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질과의 차이라면 브라질 사람과 아르헨티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브라질 사람은 외향적인데 아르헨티나 사람은 내성적이죠. 그래서 탱고는 언제나 매우 슬픔니다. 브라질 음악은 드럼과 같은 타악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동양적인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내면적인거지요. 그래서 탱고는 언제나 슬픔니다. 결코 행복한 음악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피아졸라는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클래식과 재즈까지 더함으로써 탱고를 부활시켜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음악은 발을 위한 탱고가 아니라 귀를 위한 탱고다”라고 선언했던 그대로를,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러하듯 그 또한 고향에

서는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택시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할 정도였으니 피아졸라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꺾지 않은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내달랐던 잡초 같은 생명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음악과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피아졸라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Adiós Nonino (1960)
Tiempo Nuevo (1962)
La Guardia Vieja (1966)
ION Studios (1968)
María de Buenos Aires (1968)
Roma (1972)
Libertango (1974)
Reunión Cumbre (Summit) (1974)
With Amelita Baltar (1974)
Buenos Aires (1976)
Il Pleut Sur Santiago (1976)
Suite Punta del Este (1982)
Concierto de Nacar (1983)
SWF Rundfunkorchester (1983)
Live in Wien Vol.1 (1984)
Enrico IV (1984)
Green Studio (1984)
Teatro Nazionale di Milano (1984)
El exilio de Gardel (soundtrack, 1985)
Tango: Zero Hour (1986)

The New Tango (1987)

Sur (1988)

La camorra (1989)

Hommage a Liege: Concierto para bandoneón y guitarra/Historia del Tango (1988)

Bandoneón sinfónico (1990)

The Rough Dancer and the Cyclical Night (Tango apasionado) (1991)

Five Tango Sensations (1991)

Original Tangos from Argentina (1992)

The Central Park Concert 1987 (1994)

덧붙여 피아졸라의 음악을 단 한 장의 음반으로 집대성한 『PIAZZOLLA FOREVER』를 추천합니다. 피아졸라 서거 10주년을 기념해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케스트라, 안트리오, 에로리카 트리오, 마요르 6중주단, 베를린 필하모닉 12첼리스트, 다니엘 비넬리 등이 그의 곡을 연주하여 헌정했고, 피아졸라 본인의 연주곡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홍승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 및 산학협력 단장직을 맡고 있다. 대표서로는 『예술 경영 입문』,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제』,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등이 있다.